

# 군산, 새만금 이차전지 미래 밝히다

### 제2회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육성 컨퍼런스 개최...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의 현황과 미래 조망

군산시는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 오는 29일 군산새만금캠퍼스센터(GSCC)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조망하는 '제2회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육성 컨퍼런스(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대규모 행사)는 이차전지 분야 기업, 기관,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차전지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함께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 현황 및 성과 발표가 예정되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발표 주제 역시 차세대 배터리 기술, 핵심 소재 개발 및 사용 후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 전망 등을 총망라해 이차

전지 산업의 미래를 한눈에 조망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1부 개회식으로 시작되며, 2부에서는 새만금 이차전지 기술 동향을 주제로 한 △변화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국립군산대학교 이차전지 인력양성 현황 등을 소개한다.

3부는 이차전지 기업들이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 현황, 주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순서로 구성된다.

이 시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이차전지 개발 동향> △한국산업기술기술평가원의 <국내외 배터리 산업 전망과 핵심 소재 개발 동향> △에코엔드림의 <새만금 이차전지 양극 소재 개발 현황 및 전망> △대주전자재료의 <새만금 이차전지 음극 소재 개발 현황 및 전망> △성일하이텍의 <새만금 사용후 이차전지 재활용 현황 및 전망> 등이 발표된다.

또한, 참석자들 간의 교류 시간도 마련해 산학연 협력 강화 및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군산시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연구 기반 시설 구축, 이차전지 특화 인력양성 및 정주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와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구축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기업지원 및 산단 근로자들의 정주 요건을 개선했다.

이외에도 국립군산대의 '이차전지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지원을 통해 이차전지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해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 한강 작가 관련 특별 문화행사 운영

### 군산시립도서관, 우리나라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북 큐레이션 · 필사 코너 · 축하 메세지 남기기 · 강연 등

군산시립도서관에서는 우리나라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강 작가 관련 특별문화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서관에 한강 작가의 책을 대출하려는 열풍이 불고 있다. 이에 맞춰 주요저서 60여권 및 전자책 6종 30권을 추가 구입했다. 또한 도서관 일반자료실에 한강 작가의 작품과 서평을 전시하는 북 큐레이션과 내 마음을 울리는 작품 속 한 문장 필사 코너,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한 줄 서평 남기기를 통해 수상 축하 메시지를 남기기를 운영한다.

11월 26일에는 한강 작가의 문학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군산대 류보선 교수의 해설 강연을 준비했다. 이 강연은 중학생 이상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 할 예정이며, 11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추가로 '한국문학의 힘을 세계에 알리다'라는 주제로 '한강 작가와 함께



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한 '김주혜 작가의 북 큐레이션 운영 및 작가 이름 N행시 짓기를 통해 시민들에게 세계에서 인정받은 한국문학을 소개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기념 특별문화행사를 통해 한국문학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책과 도서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 통

### 익산시 "연락 두절 상속인 있어도 폐차 가능하다"

익산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상속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를 개선한다.

익산시는 다음 달부터 자동차 상속말소 진행 시 상속 지분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자동차 상속말소는 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었다.

연락 두절 상속인이 있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동차 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의무보험, 정기 검사 등 의무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져야 했다.

개선된 시행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연락 두절 상속인이 말소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동의해 상속 지분의 과반이 동의하면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차량 잔존가치가 25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등록료에 따른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초대장과 함께 편지 발송

익산시의 이색캠핑 '경이로운 감행생활' 참가자들에게 과거에서 온 편지가 도착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11월 '경이로운 감행생활' 행사를 진행하며, 1년 후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보는 시간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년여 만인 이달 초, 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100여 명에게 2024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초대장과 함께 앞서 작성한 편지를 발송했다.

올해 국화축제는 11월 3일까지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 미륵사에서 분산전시가 진행된다. 이에 백제역사유적지구인 미륵사와 국립익산박물관을 즐기고 가을꽃 전시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깊어가는 가을날 가족들과 꽃구경도 하고 백제문화도 함께 즐기는 시간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공공시설부터 주차장 제대로 갖춰야"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 탁상행정, 주차는 어디에?' 주제 5분 발언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지난 25일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23... 군산시의 탁상행정, 주차는 어디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지난 18일 경제청만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광역 해양레저 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보고를 받으며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육도면 무너도리 산56번지 일원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386억 9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사업 기간을 2025년까지 1년 연장하면서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가 42억 9천만 원으로 변경되어 추가예산 35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업기간 연장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은 차치하고, 증가된 예산에는 진입도로 신설에 따른 추가 비용 약 10억원,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5억 원 편성돼 있다고 했다.

이어 해양레저체험시설 이용을 하려면 주차부터 해야 하는데 기존 계획된 주차장은 총 119면으로 상주 직원만 50여 명이며 60여 대의 여분으로 예측되는 하루 이용객 1,000명을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담당부서는 계획된 주차장도 법정 주차면수 63대를 188% 초과한 면수라고 설명하였으나 이용객 대비 예측 가능한 주차수요면수는 314면으로 약 200면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군산시는 대응책으로 올 상반기까지 인근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7분 거리의 셔틀버스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말도 안되는 이 계획은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폐지하고 임시주차장 조성 방안을 마련한 것인데 임시주차장 조성에도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해양레저체험 시설과 거리가 평균 300m 정도로 도보로 5분 이상 소요되어 이용객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또한 시유지 추가 활용 및 5억 원의 예산 추가라는 예산낭비를 하게 된다면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것이나, 아니면 안한 것이냐고 지적하며 이제야 주차장 부족 상황을 해결하고자 동분서주하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며 당초 계획 수립 시 하루 이용객 1,000명에 맞게 총 주차면수를 예측하여 주차장 계획을 수립했어야지, 2022년에 새만금개발특별합심위원회의 안전 심의 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주차수요 대응 계획에 의해 이미 수립된 방안이었다고 변명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군산=이재춘 기자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가 건축 설계 및 실행 과정에서 주차장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주차난을 발생시킨 사업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공공시설 중 군산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경안동 군산 로컬푸드 복합센터의 경우 상주하는 직원만으로도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 이용객이 주차할 공간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어 로컬푸드 매장 바로 옆에 완공 예정인 군산시 가족센터도 이용객 대비 주차장 면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이용객의 주차위반 상황을 초래한 꼴이 되며, 주차단속에 따른 민원만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군산시 탁상행정의 전횡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매번 지적하지만, 결과는 늘 주차장 부족 상태 그대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직접 불편을 겪어보아야 시민의 고충을 아나, 왜 민원처리 공무원이 겪지 않느냐, 왜 민원처리 공무원이 겪지 않느냐, 왜 민원처리 공무원이 겪지 않느냐 차리고 사업계획부터 제대로 추진하라며 사업계획 단계에서 이용객 수요를 제대로 예측해 공공시설부터 주차장을 제대로 갖춰 건축을 추진하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그린바이오 포럼" 창립총회 개최

### 각 전문가 총 집합해 시의 혁신성장 견인 목표로 출범

'익산시 그린바이오 포럼'이 지난 25일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함차게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창립총회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장, 김대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린바이오 포럼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채수찬 전북대 지역혁신센터장이 익산시 그린바이오 포럼을 이끌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윤석진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이 '세계 속의 익산 새로운 지역혁신 모델을 향하

여리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익산시 그린바이오 포럼은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익산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자 창립됐다. 포럼은 △바이오정책분과 △농식품분과 △생명자원분과 △바이오융합분과로 구성됐다.

익산시는 그린바이오 6대 분야 중 식품과 동물용 의약품 분야의 거점으로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국내 첫 그린바이오 벤처캐피탈 조성지로 선정돼 건립에 박차를 가하면서 그린바이오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 초등생 돌봄교실 방학 도시락 '인기'

### 만족도 조사 결과 94%

익산시가 방학 동안 초등학생에게 도시락을 공급해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시는 '방학 중 초등돌봄 도시락 공급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94%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여름방학 도심권 27개 초등학교에서 900여 명의 돌봄교실 참여

어린이에게 도시락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 진행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도시락과 맛, 영양, 신선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학부모의 방학 중 돌봄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로 도농 상생 도모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성장기 어린이에게 영양 만점 도시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